보성군, '국민행복민원실' 전남 최초 3회 연속 선정

2019년부터 2028년까지 9년 연속 우수 민원 서비스 유지

보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 민원실 평가에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며, 전라남도 최초로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선정으로 보성군은 2019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9년 연속 우수 민원실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교육청·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 처리 실태, 서비스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민원실을 3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 4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보성군은 2019년 최초 인증, 2022년 재인증, 2025년 3차 인증에 연이어 성공해, 제도 도입 이후 전남 최초의 3회 연속 인증 기관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보성군청 종합민원실은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 민원 처리 절차의 체계화, 민원 응대의 일관성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 지표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 종합 평가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행정의 특징으로는 '민원 안내 도우미' 상시 배치가 꼽힌다. 민원 안내 도우미는 청사를 방문한 군민과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며, 현장 중심의 응대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 운영 방식은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 타 지자체 민원실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보성군은 이번 선정을 기념해 행정안전부가 수여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을 제막했다.

군 관계자는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친절한 민원 응대와 다방면의 끊임없는 서비스 개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2025년을 빛낸 광양시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뽑은 2025년 광양의 변화와 도약

광양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 중 시 공무원과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0개 뉴스를 발표했다.

시는 26개 부서에서 제출한 36개의 뉴스 중 자체 심사에서 선정된 20개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새올 행정시스템과 모바일 행정플랫폼 'MY광양' 앱,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광양시 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위부터 5위에는 ▲광양시, 전남 유일 '4년 연속' 인구증가 도시로 '우뚝' ▲광양시 모든 행정서비스, 이제 'MY광양' 앱 하나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미래 철강도시 도약의 전환점 마련 ▲광양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이 선정됐다.

6위부터 10위에는 ▲광양매화마을,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광양 섬진강재첩,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K-푸드'로 도약 ▲'2024 지역발전지수' 광양시, 전국 23위…지역경제력·주민활력 분야 '호남 1위' ▲광양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상향 조정…전남 관리지역 중 '유일'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성공 개최…산업도시 넘어 아시아 미디어아트 허브로 전환 가속이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구봉산 관광단지 승인, 4년 연속 인구 증가,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 온 광양시의 정책 역량이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문화·관광도시 전환을 축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영광군,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농정·식량원예·농식품유통·축산시책·동물방역위생·종합평가 6관왕

영광군은 전라남도 202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정 전반에서의 균형 있는 성과로 도내 최고 수준의 농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농업정책 분야 1위, ▲친환경농업 분야 7위(전년 18위), ▲식량원예 분야 5위(우수상), ▲농식품유통 분야 3위(최우수상), ▲축산시책 분야 1위(대상), ▲가축방역위생 분야 3위(우수상)를 차지하며 7년 연속 종합평가 최우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잦은 이상기후와 불확실한 농업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농정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촘촘한 농축어업 재해 보상 체계를 통해 농업인들이 다른 걱정 없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식량·원예작물 생산 추진,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 총 6개 분야 37개 항목의 농정업무 전반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카메라 뉴스

2026년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자 추첨식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9일 화순군 청년하우스 1층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취·창업 지원을 위한 주거형 취업 공간인 '화순군 청년하우스'의 2026년 입주자 공개 추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추첨은 총 35명의 신청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28명 신청자의 관내·관외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거주자는 18명, 관외 거주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0대 청년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는 36%로 집계됐다. 성별 경쟁률은 남성 15명 지원으로 2.5:1, 여성 13명 지원으로 2:1을 기록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구례군수의사회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남 구례군은 12월 22일 구례군수의사회(회장 정기영)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기영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연말연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구례군수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 농민연대, 연말 맞아 불우이웃돕기 쌀 기증

장흥군 농민연대(상임회장 정윤상)는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불우이웃돕기 기증식을 개최했다.

농민연대는 10개 농업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구성된 연대 조직으로, 기증식에서는 회원 단체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쌀 70포(10kg/포)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기증된 쌀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윤상 장흥군 농민연대 상임회장은 "10개 농업관련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